

코앞에 다가온 하느님의 왕국

[1]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체 중 매우 하찮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없던 것이었는데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빈틈없는 질서로 움직이는 이 웅장하고도 오묘한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심술일까. 천지가 스스로 생겼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기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피동인 까닭입니다.

낳는 자가 없으면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생(生)겼다 라는 말을 굳이 달리 표현하여 천지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든지 천지가 지어졌다 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말을 해도 피동으로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동이 없이는 피동도 있을 수 없어서 피동에 스스로라는 말을 붙여 말할 수 없습니다. 피동에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면 자신이 낳아 자신이 생겨났다고 하는 궤변밖에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는 특이한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구하거나 깨달은 바를 글로 쓴 문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말씀을 사람이 받아 쓴 문서들입니다.

지금의 유태교와 기독교에서 성서라고 하는 문서 중에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 쓴 글귀들이 있는데, 그 성서 중에서 으뜸으로 있는 문서가 창세기(創世記)입니다. 그 창세기는 모슬렘까지 거룩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인데 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하느님의 능동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피동이 되어 생겨났습니다. 천지는 보지 못하지만 그 천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천지가 있다고 여기듯이, 사람이 하느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을 위시하여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어서 모든 피조물을 상대하여 보시는 신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물론, 기식(氣息)이 있어서 숨을 쉬며 활동하는 인생이라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쉬어지니까 숨을 쉬고 아침이면 눈이 떠지니까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며 내 아무리 천세를 살아보려고 작심하고 기를 쓴들 늙어져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이 내 몸이 어찌 스스로 있는 자랄 수 있으리까.

늙어가고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나 자신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나는 분명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의와는 상관없이 오늘 밤에라도 하느님께서 명(命)을 거두시어 영혼이 떠나면 나는 더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그 뜻에 따라 생겨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동 쪽인 주체에 종속되어서 천지 만물이 존속합니다.

태초를 말씀하신 구약성서의 첫 말씀과 같이 신약성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첫 증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ㄱ.창1:1 ㄴ.요1:18 ㄷ.출3:15 ㄹ.창1:31, 16:13 시33:15 ㅁ.겔2:26 사66:1 ㅂ.눅12:20 ㅅ.요1:1

하였으며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여서 능동 쪽에 말씀이 계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속언에 풀 한 포기라도 뜻이 있어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하신 뜻이 계시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천지가 있고 인생도 있습니다. 신, 구약의 성서는 사람이 옮겨 쓴 사본들이 전하여 내려오는데 그 사본들이 온 세상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고 쓰여 있는 사본이 있고 태초에도 (道)가 있느니라 고도 쓰여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극동에서는 말씀이라는 어휘보다는 도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어 내려오고 있으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行)하여야 할 길(道)이라는 의미나 결국은 같은 진리를 가리키는 어휘입니다. 태초에 주장하시는 뜻이 계시서 비로소 천지도 있고 인생도 있게 된 것이니 인생이 그 말씀을 의당히 따라야 하고 그 길만을 의당히 걸어야 하는바, 곧 인생의 도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한글판 성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인 성구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히브리(고대 이스라엘 민족)어로 쓰인 원문에는 단수명사가 아니라 하느님들이라는 뜻이 있는 복수명사이고 이 복수명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네 인생을 지으신 주인(소유주)입니다. 성서의 첫 문서에 있는 첫 구절을 그대로 옮기면 「태초에 하느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 됩니다.

천지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복수이시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ㄱ 성서는 밝혔습니다. 우리라고 하시는 그 복수의 의미가 얼마나 중한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우리」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 번으로 중첩하셔서 말씀하신 것일까? 요한의 증거 또한 이 율법의 내용을 똑같이 밝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 ㄴ 증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또한 하느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극동의 옛 문서에 하느님을 뜻글로 홀(제왕이 손에 쥐고 있었던 主帝者의 상징물) 이름 환(桓) 자에 말미암을 인(因)자를 써서 환인(桓因)이라고 표기하였듯이,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환인께서 계시서 그 결과 환웅(桓雄)이라고 하시는 환인의 아드님이 계셨고 그 환웅으로 말미암아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어서 그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하느님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주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ㄷ 말씀하신 그 하느님네들의 「우리」 이시오. 곧 복수이신 하느님들께서 그 복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성서 중 첫째 문서로부터 다섯째 문서까지를 유대에서는 율법이라고 일컫습니다만, 하느님을 지칭한 단어가 그 율법의 첫 장에 있는 첫째 구절만 복수가 아니라 모세가 노래한 두 차례의 ㄹ 시구를 제외하고 율법 전체가 복수명사로 쓰여있는 하느님입니다.

ㄱ.창1:26~27 ㄴ.요1:1~3 ㄷ.창1:26 ㄹ.신32:15~17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가리켜 항상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느님은 유일하신 ㄱ 임이십니다. 「우리」 이신 그 하느님네들께서 유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생긴 자여야 그 생긴 모양을 보고 형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사람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느님을 본 자도 없을 뿐더러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은 어디까지나 허공에서 물체를 분간하여 내는 것이요. 궁창(穹蒼)의 그 허공도 하느님에 의하여 생겨 있고 삼라만상의 만물도 그에 의하여 생겨 있는 그 만유의 조물주를 인생이 무엇으로 분간하여서 감히 하느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느님의 수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형용하여 주신 대로만 인생이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상천(上天) 하지(下地)에 오직 여호와(하느님께서 불러주신 당신의 성호)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한글판 개역성서를 이 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역성서에 이 구절이 과도하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상형문자로 환인의 그 인(因)자의 상형이 유일한 큰 대(大)자만이 사방에 가득한 상형이듯, 성서의 이 원문은 상천 하지로 아무리 뺏어도(벗어나려고 하여도) 하느님 아님이 없다는 문장으로서 하늘에나 땅에서나 오로지 하느님만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서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을 의미하는 어휘가 아니라, 천지의 대주재(大主帝)를 의미하는 어휘여서 상천 하지에 오로지 그

ㄱ. 마19:17, 23:9 막12:29 요5:44, 17:3 ㄴ. 요4:24 ㄷ. 출33:20 요6:46 ㄹ. 신4:39 ㅁ. 마11:25 행4:24, 17:24 유1:4 계6:10

주권만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이시지,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른 주가 없다는 의미이지,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설법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오직 뿐인 여호와라는 문장이어서, 그 어떤 분야가 아닌 전부이신 주이시니 그 전부라는 뜻을 그 뒤가 받아 그렇게 인생이 인생의 마음을 전부 다하고 성품을 전부 다하고 힘을 전부 다하여 받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북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구절을 재언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가르치셨을까.

본래는 「한」 이라고 하는 조선 말이 수치의 관념보다는 커다람을 표현하였던 말이었듯이 『오직 하나인』 이나 『유일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가 숫자로 헤아려서 단수라는 의미보다는 오직 그만이 계시다는 의미의 어휘이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신이 아니라 주(主)입니다. 너와 내가 몸은 다르나, 뜻이 맞으면 한 우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우리 중 하나』 라고 또다시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셨듯이 복수가 연합하시어 하나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십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신(영)이십니다. 사람의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명이시어서 사람의 육신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전당에 국한하여 계신 것이 아닙니다.

ㄱ.신6:4~5 ㄴ.막12:29 ㄷ.사37:16 ㄹ.요10:16 ㅁ.창3:22 ㅂ.요10:23, 11:52, 17:11, 21~23 ㅅ.요4:24

성전이나 산 당에 찾아가서야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 것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ㄱ.

하느님께서 신령이시나 그 신과 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주는 유일하지만 신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여서 주가 아닙니다. 천상천하를 막론하고 널린 것이 신(영)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ㄴ 신이고 하늘 아래 귀신들도 ㄷ 역시 신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천지의 유일한 주시라는 ㄹ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문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문자를 친히 쓰셔서 주신 계명이 ㅁ 있습니다.

그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ㅂ.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신 율법의 첫 문구 속의 하느님과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신들이라는 어휘로 바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히브리 문자를 돌 판에 새겨주시어서 율법 중에도 이보다 중한 문장이 있을 수 없건만 기독교에서는 전연 다른 문장으로 고쳐서 옮겨 놓고 이를 성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그대로 우리 말로 옮기면 『너는 내 앞에 다른 하느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땅 위에는 땅보다 먼저 생긴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궁창(穹蒼)이라고도 일컫으신바, 그 공간보다 먼저 탄생하신 빛이 ㅅ 계시니 그 빛이 곧 창조의 근본이시오. 그 빛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이 ㅇ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어서 천지보다 먼저 계신 하느님의 신과 빛은 조물주이시오. 하느님의 신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에 빛이 함께 하셨으니 하느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ㄱ.요4:24 ㄴ.삼하24:16 왕상22:19 시103:21 단8:16, 12:1 ㄷ.마8:32 막1:27, 34 ㄹ.마11:25막12:29 계6:10 ㅁ.출31:18 ㅂ.출20:3 ㅅ.창1:3 ㅇ.창1:2 ㅊ.욥11:8 시102:26, 103:19, 113:4 마5:34~35, 11:25 히7:26 계6:10

동방 풍속에 사람이 손가락질로 사람을 지적하거나, 더구나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람의 머릿수를 헤아리는 행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짓거리(禁忌)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수를 헤아려서 호구조사를 하였다가 그것이 범죄인 줄 깨닫고 뉘우쳤는데 그 뉘우침에도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그 나라에 내리셨습니다 ㄱ.

사람을 수치로 헤아리든 외모로 헤아리든 사람의 척도로써 장단점을 품평하며 사람을 헤아리는 ㄴ 행위는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행할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축과 같은 금수에게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점지하고 임명하며 헤아리고 판단하는 따위는 종속된 것들에 대한 주인의 몫일 뿐입니다.

그 같은 권한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한입니다.

개도 소나 양 같이 사람이 기르는 짐승이나 오늘날은 개를 애견으로 키우는 색다른 풍조가 범람하여, 늙은 부모는 버려서 모시지 않으면서 개에게는 사람과 같은 이름을 지어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살면서 손수 배설물을 치워주고 씻겨 주며 포옹까지 합니다.

백성 개개인이 주체라고 하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저마다 자신을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교육되어서, 저마다 상전 노릇을 하려고 싸우며 살아가는 세상이니 사람 사이가 멀어져서 더는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며 살지 못하고 개를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에 개를 넣어 말을 하면 욕이 됩니다. 개를 친구로 여기는 사람에게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을 모욕했다고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ㄱ.삼하24:10~17 ㄴ.마7:2 막4:24 눅6:38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있는 계명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서 범죄를 징계하고 사람이 그 법도를 어겨서 사람답지 아니한 행동을 할 때 개로 비유하는 언사를 써서 모욕함으로써 그러한 행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전통적 풍속같이 개는 마루에라도 얼씬 못하게 천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생의 격을 높이는 수단이 되듯 상하의 절도를 두는 것이 예절입니다.

법도가 없으면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오 ㄱ.

짐승도 인생과 같은 생명을 가졌으나 사람의 삶과 짐승의 삶은 격이 다릅니다. 짐승과는 달리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박아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은 수많은 금수보다 고귀합니다 ㄴ.

인생이 금수를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금수 위의 인격을 주셨기에 사람이 금수의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ㄷ. 하느님께서 먼저 법을 내리셨고 그 법보다 더 귀한 은혜를 내리셨기 사람과 짐승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서로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ㄹ.

하물며 사람이 하느님을 헤아리고 정의를 내려 판단한다는 말인가.

조선 말은 이름 씨(名詞)가 성별이나 수치로 분별하여서 부르는 말씨가 아니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조선 말을 가지고 수를 논할 수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이 하느님께 관하여서는 감히 숫자의 관념을 가질 수가 없어서 시구에서는 수치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복수형의 명사를

ㄱ.마7:6, 15:27 ㄴ.마10:31 눅12:7 ㄷ.창2:19 ㄹ.마7:1~2 눅6:37~38 롬14:10

단수형의 어휘로도 불렀듯이, 조선사람의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그와 같아서 하느님께서는 그저 크고 높으신 님이라는 관념이 앞서 인생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님이시고 따라서 당연히 하느님께 관하여 숫자의 관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로 논할 데가 따로 있는 것이지, 높은 데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어서 사람이 결국 그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믿어오는 옥황상제(천주를 의미하는 또 다른 한문식의 표현)이십니다.

기독교 중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 말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수치상 단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하느님은 자기네가 전파하는 신이 아니라 하여서인지, 유독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조어를 제작하여 번역한 성경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이라면 그 백성이 그 나라의 국가로 부르는 그 하느님은 그 나라 기독교인에게는 무엇이오. 표준어가 정하여지기 전, 하느님,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 등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표준어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인가. 창작인지 아니면 모방인지, 하느님과 유사하게 「하나님」이라고 작명하여 한글판 성서에 쓰이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런데 참말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의미(天主, 天帝 또는 上帝)를 가진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던 백성이 있었습니다.

옛 헬라의 ᄒ 문명권에서는 자기들과 같이 각자 육체의 형상과 이름을 가진 여러 신을 숭배하였기 그 신들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사람을 부르듯 그 신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한 신의 집단을 의미하는 집단명사는 있었지만, 동방 민족의 하느님을 의미하는 존재는 쓰고 부를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는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남성을 가진 신들과 여신들이 있어서 간통이든 강간이든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ᄒ. 단8:21 올3:6

신들이 태어나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싸우며 죽이는 신들의 사회입니다. 각자가 질서, 전쟁, 바다, 술, 출산, 미(美) 등 별별 분야로 나뉘어 서로 싸워서 쳐 죽이고 연애도하고 모함도 하며 결탁도 하는 신들입니다. 실인즉 도시국가라고 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자신들을 소재로 삼아 흥미를 불러 일으키도록 꾸며서 만든 공상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것을 신화라 부르고 그 속의 배역들을 신들이라 부른 것입니다.

성서의 하느님과 는 하나부터 열 가지가 반대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무대였기 성서와는 근본부터가 반대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셈의 후손들이 말하는 하느님이라고 ᄒ 하는 전연 다른 관념의 어휘를 놓고 분석하였고 자기네의 신과 비교하여 셈의 하느님은 유일신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셈의 하느님과 자신들의 관념 속에 있는 그 「신들」 과의 차이를 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신론이니 다신론이니 하며 논설을 지어서 단수와 복수의 차이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셈족의 말과 그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 유일신을 자기네 언어로 창작하여 지었는데, 「신들」 이라는 뜻이 있는 자기네 고유의 어휘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꼬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대문자로 쓰도록 결의하여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관념은 신들에 대한 자기네의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여야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전연 다른 관념이거늘, 자기네 관념을 모태로 삼아서 새 이름 씨를 창작하였습니다.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아담(사람)이라는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이 하느님을 정의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ᄒ. 창9:26 ᄒ. 창3:9

예수께서 하느님을 일컬으시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셨듯이 ᄒ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온통 하늘이라는 어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부, 천국, 천사 등의 어휘와 같이 위 하늘을 우러러보는 경천(敬天)의 관념은 본시 동방의 아시아에서 농경으로 살아가던 백성이 가졌던 관념입니다.

그러나 해양의 전사들에게 의존하여 그 전사들을 영웅시하며 살았던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위 하늘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를 쳐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 인간 자신의 힘이 위대했던 사회였기 하느님의 뜻이 있는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지가 하느님께 종속되어 ᄒ 있습니다. 농사로서 살아가던 백성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삶의 젖줄 이어서 극동의 조선 땅에서도 하느님께 기우제를 올리며 하느님이라는 말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서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하시어서 ᄒ 히브리 음으로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성호를 처음으로 나타내신 문구에서 비를 내리시는 결정권을 가지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로서 소개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권력투쟁을 벌여 남은 고사하고 제 아비나 자식까지 쳐 죽이고 간통하는 신들에 대한 선입관 때문인가. 물체가 아니라 조물주시라고 하는데, 왜 하느님께서 벌려 놓으신 공간으로써 거꾸로 하느님을 재단하여 제작하려 하였는지.

자기네 고유의 어휘를 올려내 단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단수의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율법을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려는데, 바로 그 단어 때문에 율법의 첫 마디부터 문제입니다. 율법 첫 마디에 있는 하느님이 도리어 복수 형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ㄱ.마6:9 ㄴ.신10:14 사48:13, 66:1 겔1:26, 10:1 ㄷ.창2:5 마5:45

한두 번도 아니고 성서에 가득히 메워져 있는 복수 형 단어를 모두 단수로 개조하여 옮겼는데,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조선에 유입되어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하느님이라는 말이 버젓이 있건만 개신교를 전도하였던 선교사들이 그 동방의 언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천주의 이름을 작명하였으니 성서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한 이름 씨를 그들이 작명한 「하나님」으로도 옮기고, 신으로도 옮기고, 또 신들로도 마구 바꾸어가며 옮겨서 보는 이로 하여금 본래의 뜻에서 이탈하여 혼돈 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은 섬겨야 할 님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ㄱ.

하느님께서만이 천상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뿐인 주이시니 그러므로 인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받들어야 할 님이심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신을 부르는 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主)이십니다. 우리네 인생이 아래가 되어나 행실로 섬겨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의 하느님이 되시는 것이요, 그 주가 곧 섬의 하느님이십니다 ㄷ.

신학이 무엇이요, 오로지 받들어야 하는 주시거늘, 거꾸로 사람 쪽이 주가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논술하여 정의하면 이것이 하느님이요 저렇게 논술하여 정의하면 저것이 하느님이 됩니까.

이 때문에 기독교가 하느님을 실제의 주로 여겨서 자신을 하느님께 예속하여 행동하는 선행으로써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주체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단지 자기 머리 속의 논리로 믿고 종교라고 하는 사회의 한 분야로써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ㄱ.막12:29 ㄴ.요13:14~16 ㄷ.창9:26 ㄹ.창4:7 사1:15~17 요8:39 요일3:22

한국 말의 하느님은 헬라의 신들의 이름 같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창작하고 작명하여 만들어낸 명사가 아닐뿐더러 그 같은 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님(임금) ㄱ, 곧 천주이실 뿐입니다. 주께로부터 벗어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하느님만 계십니다 ㄴ. 내가 있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계셔서 있게 된 몸일 뿐이요, 하느님께서서만이 스스로 계신 임이십니다. 주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임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신하로서라면 그 상대의 임금을 임이라는 말로써 지칭하였고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을 나라 님이라고 불렀으며 여인으로서라면 그 상대의 지아비를 임이라고도 하였듯이, 임이라는 조선 말이 본시 사모하는 대상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소.

인생으로서 오로지 사모하여야 할 대상이 하느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래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 사람이 생각하고 자시고 전에 그냥 높으신 임이시니, 당연히 인생은 누구든 그 아래 것이어서 받들어 순종하여야 하는 임이실 뿐입니다. 먼저 위아래부터 알아야 『하늘에 계신』 ㄷ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가르치신 말씀 속에는 신이라는 문자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낳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네 인생 상대방의 임이십니다.

성서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셨듯이 하느님과 신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행히 희랍어로 번역된 성서에 그 희랍의 신들과는 달리 정령(精靈)의 의미가 있는 어휘가 있어서 율법의 『하나님의 신』을 번역하였으나 동방에서 말하는 신령(神靈)의 그 신과 영은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같은 말입니다.

ㄱ.마23:9 ㄴ.신4:39 시139:8 사66:1 ㄷ.6:9, 14, 32 마23:9

성서 속에는 하느님의 하느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판 성서에 『신들의 신』으로 옮겼으나 창세기 첫 문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과 같은 명사입니다.

하느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萬主)의 주(主)』 이십니다. 성서 원문대로 하느님의 하느님이라는 성서의 문구대로 하느님께서 주재자(主宰者) 위의 주재자이신 대주재(大主宰)이십니다.

하느님의 하느님이라는 성구를 「신들의 신」으로 옮겼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다른 곳에는 아주 전능하신 자로 변조하여 옮겼습니다.

신은 단수라고 하는 신학적 정의에 따라 「하느님의 하느님」은 물론 「신들의 신」이라는 번역까지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하느님이 있었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신 말씀이거늘, 이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었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로 번역하여 원문에 없는 문구까지 삽입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당신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토대가 없이 집이 지어질 수 없고 땅이 없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하느님은 만유가 그에 의하여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그 반석이십니다.

사람이 자의로 살지 않고 의지하여 살아야 할 토대가 하느님밖에는 없다고 하시는 의미이지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의 어휘는 고사하고 그것이 비록 일 점이나 일 획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을 보태거나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행위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일 점, 일 획이라도 흘뜨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들어서야 하느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ㄱ.신10:17 시136:2 단2:47, 11:36 ㄴ.딤후6:15 계17:14, 19:16 ㄷ.수22:22 ㄹ.사44:8 ㅁ.시18:2, 31, 46 사26:4 ㅂ.신32:18 ㅅ.마5:18 ㅇ.마5:18~19 눅16:17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임의로 빠뜨리거나 보태지 않는 것이 인생으로서 하늘에 계신 주를 대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시의 말씀을 사람이 제멋대로 보태거나 제하여버리는 처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처사입니다.

성서에 일 점이나 일 획을 빠뜨리거나 보태면 복수가 단수로 둔갑 되고 단수가 복수로 바뀌는 것이요, 율법은 그 일 점 일 획이라도 사람이 폐할 수 없는 천주의 말씀입니다.

신들의 사회가 머리속에 박혀 있던 그리스와 로마의 학자들이 단수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서의 하느님으로 대체하였던 그들의 본바닥은 소위 철학이 난 곳입니다.

그 철학에 몰들면 무엇이든 정의하기를 좋아하여 그들은 자기 스스로마저 정의하기를 「생각하는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 이랍니다. 그 사회적 동물의 생각이 단수의 신을 창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어찌 눈에 보이는 몸뚱이만이겠소.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를 숭상하였던 동방에서는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곳에서 숭배하는 신들 자체가 사람의 궁리로 만들어진 우상이어서 실상은 사람 자신이 주(主)가 되는 사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임이시어서 주는 오직 하느님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어서 천지 만물은 물론 너와 나를 소유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이시니 이것이 하늘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인생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그 주를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ㄱ. 요17:17 ㄴ. 신4:2, 12:32 마5:19 계22:18~19 ㄷ. 신6:5 마22:35~38 막12:29~31 눅10:25~27

회랍의 신들과 같이 육신의 형상을 가져야 신이고 그 형상이 없으면 영입니까?
회랍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공상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계명 가운데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ㄱ.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유독 이 둘째 계명을 소상히 풀어서 가르치기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상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分定)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라고 ㄴ 하였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면 안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주의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을 보지 않았으니 삼가되 깊이 삼갈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천상천하에 그 어떤 형상이든 신이신 하느님의 형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할 천지의 주를 떠나, 제 자신 쪽을 위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 경배하면 그것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ㄱ. 출20:4~6 ㄴ. 신4:13~19

문제는 『우리』로서 계시는 하느님네들께서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만들어진 바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신 ㄱ 말씀입니다. 하느님들께서 그 복수의 모양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ㄴ 한 요한의 증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육체적 모양이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뜻이 하느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보이지 않는 양쪽 상대의 뜻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양위(兩位)이시기 때문에 복수명사이나 그 복수가 연합하여 하나이신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이어서 하느님은 유일하신 주이시오. 동방에서는 이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보이지 않는 양의(兩儀)의 뜻을 양(陽)과 음(陰)이라는 말로써 일컬어 왔습니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 입니다. 하나인 음 하나인 양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라는 주역의 글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음양의 그 보이지 않는 뜻을 도(道)라고 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도가 곧 하느님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땅의 흙을 취하시어서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남녀를 똑같이 흙으로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을 취하시어서 먼저 한 남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의 몸을 또다시 취하시어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의 몸을 취하시어 지으신 여자를 다시 그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남자가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ㄱ.창1:26~27 ㄴ.요1:1 *周易 繫辭傳 ㄷ.창2:7 ㄹ.창2:21~22 ㅁ.창2:23

자기 배필을 보고 일컫는 아담의 말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인데 그 골육이 자기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여서 여자는 남자의 몸인데 남자 안의 몸이라고 한 것이고, 그 몸을 남자에게서 취(取)하였은즉 여자라고 하여서 남자의 나중 몸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느님이십니다. 그 처음과 나중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남자와 여자인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느님께서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탄생하시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의 양위(兩位)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일 양과 일 음이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그 양위께서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계시는 임이 바로 오로지 주이신 여호와 하느님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말을 이으시어 가라사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뼈와 살의 육체를 보고 하나에서 둘로 나뉜 것을 말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아담의 말과는 거꾸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루어야 할 한 몸은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 태초에 하느님께서 독생자를 보셨고 그 아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는 궁창도 있기 전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몸이신 당신의 신으로 친히 당신과 같은 아들을 생산하신 것이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이름이 생산하신 하느님과 탄생하신 하느님의 복수입니다.

조선말에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것을 일컬어 자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자식의 몸을 생산한 자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듯이 처음 몸인 아버지와 나중 몸인 아들은 서로 상대입니다.

ㄱ.창2:23 ㄴ.사44:6, 48:12 계1:8, 1:17, 2:8, 21:6, 22:13 ㄷ.마23:9 요8:41 ㄹ.요1:14, 18 ㅁ.요10:30, 17:21~23 ㅂ.창2:24 ㅅ.창1:2~4 요8:58, 17:5, 24 ㅇ.요1:1~5 ㅈ.창1:2 요4:24 ㅊ.요1:18

남자의 몸으로 여자가 지어져서 남녀 두 몸이듯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신 이상,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몸입니다.

부자께서 서로 보시고 증명하시는 서로 상대의 몸이십니다.

그 부자께서 서로 연합하시어 한 「우리」로서 계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양(陽) 안에 음이 있고 음(陰) 안에 양이 있는 그 하나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자가 있어서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 살고 그와 같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남자가 있어서 여자는 그 남자를 위하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수 하나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어휘입니다. 상대가 있어 그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서로 위하여 각기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임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그 하나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들이십니다.

사람이 머리속에 그려 볼 수 있는 처음은 하늘이라고 일컫는 궁창의 그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처음일 뿐이요, 하늘이라는 바탕이 없이 땅이 있을 수 없듯, 물이라는 바탕이 있어서 궁창이 생긴 것인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그 물을 아래와 위로 나누시어 하늘을 여신 자가 하늘보다 먼저 탄생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천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자리에 계시실 수 있으신 분이 하느님이 아니요, 하느님께서 생산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궁창이 벌려져 있어서 공간보다는 하느님의 시일이 먼저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가 있기 전에 계시고 천지가 폐(閉)하여도 계시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ㄱ. 요3:11, 5:32 ㄴ. 요14:11 ㄷ. 요일4:8, 16 ㄹ. 요10:30 ㅁ. 창1:6 ㅂ. 요1:18 ㅅ. 요1:3 ㅇ. 창1:5 ㅈ. 사43:10~13
 ㅊ. 요17:5 ㅋ. 사34:4, 51:6 ㅌ. 마24:35 계20:11 ㅋ. 시90:2, 102:25~26 사41:4

태초에 계신 말씀은 물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배필을 보고 남자의 뼈와 살이라고 하였듯이 하늘이라는 궁창이 있기 전인 하느님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빛으로 탄생하셨고 그 빛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으니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께서는 주격이시고 탄생하신 하느님의 빛은 주의 상대이신 종격입니다. 사람은 보는 모든 대상을 때와 위치로 한정을 지어 증명할 뿐이나, 그러한 사람의 분별에 의하여 하느님께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은 사람의 차원로서는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체를 가리키어 가라사대 당신은 처음의 그 한쪽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먼저이신 처음이 계시서 만물이 있게 된 것이나, 그렇다고 처음의 처음이신 그 꼭대기 한 쪽만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처음은 끝이 있어야 비로소 있을 수 있어서, 사람이 분별하는 처음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이미 지어진 공간을 토대로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려 보는 상상일 뿐입니다.

처음과 끝은 영생하시는 자의 세월입니다. 처음도 하느님이시고 끝도 하느님이시니 궁창이라고 일컫으신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그 처음과 끝 안에 궁창이 종속되어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양위이시나 나중이 처음 안에 계시고 처음이 나중 안에 계시어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이어서 사람의 분석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요. 오직 성신을 받아 깨달아지는 마음으로야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ㄱ. 요1:1 ㄴ. 창2:18 ㄷ. 요2:25, 5:34 ㄹ. 사44:6, 48:12 계1:8, 17, 2:8, 22:13 ㅁ. 겔1:26, 10:1 ㅂ. 마5:8, 11:27
 ㅊ. 요14:26

어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면 듣는 자가 웃어 넘기듯 일방적인 주장은 증거가 될 수 없으나 하느님께 대한 사람의 증거가 없어도 하느님께서 생산하신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에 의해 탄생하신 아드님께서 계시어서 함께하시는 임이시니 성자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증언은 일방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자체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시어서 성자께서 이르실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신 양쪽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 하느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과 서로 부절(符節) 같이 들어맞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아들을 증명하셨고 아들 또한 유일하신 아버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당신의 언행을 통하여 하느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다 밝히신 것이어서 성자가 아니면 인생이 하느님을 알 수도 없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속의 의문들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성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생으로서는 밝혀낼 수가 없는 창조의 이적(異蹟)들을 성자께서 친히 행하시어서 초자연적인 조화의 권능이 실제 있는 것을 인생에 보여 주셨고 천지라고 하는 대자연이 그 초자연적인 조화로 창조된 것임을 증명하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본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라는 말이 있을 수 없듯이, 아버지 없이 아들이 없고 아들 없이 아버지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몸이 아니라 서로 상대이신 양위이십니다.

서로 상대이신 양위께서 서로 각자의 뜻을 각자 안에 품고 계신 것이 아니요.

ㄱ.민35:30 ㄴ.요8:16~18 ㄷ.요1:17, 8:45, 14:6 ㄹ.요5:19~21 요12:49 ㅁ.마13:11 계10:7 ㅂ.마11:27 눅10:22 요5:37~38, 14:6, 9 히7:26~28 ㅅ.마14:13~21, 15:32~39 ㅇ.요5:19

이는 저를, 저는 이를 사랑하시어 이의 안에 저가 계시고 저의 안에 이가 계심으로써 ㄱ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이어서 ㄴ 인생에는 오직 그 홀로 뿐이신 ㄷ 절대적이신 임이십니다.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만상이 오직 그 절대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뜻만이 이루어 질 뿐입니다. 그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서 오직 하느님의 계명만이 인생이 받들고 따라야 할 전부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우주 속의 만물은 그 물체가 무엇이든 이 안에 저가, 저 안에 이가 있을 수 없으나 하느님의 양위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의 안에 계시어서 서로 상대를 위하여 이바지하시는 하느님네들의 한 『우리』 이십니다 ㅁ. 내가 나를 위하면 상대를 극(魁)하나 나와 상대가 서로 상대를 위하여 현신함으로써 상생(相生)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천명을 예수께서 하느님의 계명 중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ㅅ, 구약성서의 혼(魂, 한글판 성서에는 성품으로 옮겨져 있는 어휘)을 다하여 섬기는 의미가 신약성서의 문구와 같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의미여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는 희생입니다.

천부와 천자의 양위께서 서로 상대 쪽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고 ㅈ 바치셔서 ㅉ 이바지하시니 그 하느님네의 『우리』 속에서 살리시는 생기가 한없이 솟아, 스스로 계시어서 영생하시는 ㅋ 임이 하느님이십니다.

ㄱ.요10:38, 14:10~11 ㄴ. 요10:30(창2:24),17:21~23 ㄷ.신6:4 막12:29 요5:44, 17:3 약2:19 유25 ㄹ.마6:10, 26:39, 42 요5: 30, 6:38~39 ㅁ.창1:26, 3:22, 11:7 ㅂ.신6:5 ㅅ.마22:38 막12:30~31 ㅇ.요15:13 요일3:16 ㅈ.마11:27 눅10:22 요17:10 ㅊ.요17:1~5 ㅋ.창21:33 신5:26 욥19:25 사40:28 렘10:10단12:7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고 땅도 없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ㄱ 그 태초에, 생명이 있어 살아 운행하시는 신께서 계시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ㄴ 이르셨습니다. 천지가 개벽 되기도 ㄷ 전의 그 무궁한 창세 전에 ㄹ 말씀이 계시니 ㅁ 그 말씀은 곧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ㅂ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빛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생산의 활동을 친히 행사하신 것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 움직여지는 물이 있어 무위이화(無爲而化)하여 탄생하신 제 삼의 빛이십니다. 뜻이 있으셔서 운행하시는 신의 상대는 수정같이 맑은 ㅅ 무위의 물이요. 신과 물이 양과 음이 되고 그 음수(陰水)로부터 빛이 탄생하셨으니 궁창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하느님은 곧 생산하신 아버지와 탄생하신 아드님께서 함께 계시는 ㅇ 하느님들이십니다.

말씀을 하신 하느님이 먼저이시고 빛은 그 하느님의 안에 계신 뜻이 뜻 그대로 탄생하신 하느님이시어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말씀으로 생산하셨습니다ㄷ.

명(命) 자가 천명에서 연유하여 목숨의 뜻도 갖게 되었듯이 하늘보다 먼저 탄생하신 빛은 사람과 같이 하느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만들어진ㄴ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ㄷ.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생산하듯 하느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생명이어서 하느님의 명(命)하신 말씀이 탄생하신 바, 생명(生命) 그 자체이시니ㄹ 요한은 그를 일컬어 말씀이라고 증언한 것이 옳.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는데도 탄생하신 임이시어서 때가 이르면 사망하여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생산하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과 같이 그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ㅅ.

ㄱ.창1:2 ㄴ.창1:6,9 ㄷ.창1:1 ㄹ.요17:24 ㅅ.엡1:4 ㅆ.딤후1:9 ㄷ1:2 ㅁ.요1:1 ㅂ.창1:3 ㅅ.계4:6 ㅇ.요1:1 ㅈ.요1:18 ㅊ.시2:7 ㅋ.창1:27, 5:1, 9:5-6 ㅌ.요8:12 ㅍ.요1:4, 11:25, 12:50, 14:6 ㅎ.요1:1 ㅊ.요일1:2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ㄱ.

살리시는 것은 신(영)이시고ㄴ 그 하느님의 신은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진리의 신이시니ㄷ 하느님의 기운이 곧 하느님의 신이십니다.

하느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같으신ㄹ, 그렇게 오직 뿐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신이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생산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빛만이시니ㅁ 탄생하신 님은 오직 뿐이신 독생자이십니다ㅂ.

하늘이라고 칭하여진 궁창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어서 공간을 내어 창조하신 것이고ㅅ 땅이라고 칭하여진 물은 아래 물을 물과 물로 또다시 나누시어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ㅇ 창조하신 바로되, 세상에서도 낮이면 어디든 밝지 않음이 없는 것 같이 낮이라고 칭하여진 이 천상(天上)의 빛은 아무리 뻗어도 그 빛밖에는 없으신 바, 아무런 한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은 땅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땅이 있는 것은 하늘이 라고 불리는 궁창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며 하늘이 있는 것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있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첫째 날에 탄생하신 생명의 빛이 있으셔서 생산하신 아버지의 뜻을ㅅ 받들어 그 물을 위아래로 조판(肇判)하시고 하늘을 개벽(開闢)하신 것이어서 첫째 날에 탄생하신 그 빛은 천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 탄생하신 빛과 당신의 신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어둠을 나누시어서ㄷ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는ㅊ 반대로 아래엔 사망의 어두운 음부도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비록 숨을 거두어서 세상을 하직할지언정 혼(魂)만큼은 바깥 어두운데 갇히지ㅍ 말고 빛 안에 들어야ㅎ 생명의 자유를 누립니다.

ㄱ.요5:26 ㄴ.요6:63 ㄷ.요14:17 ㄹ.요14:9 ㅅ.골1:15 ㅆ.요1서1:5 ㅁ.창1:1 ㅂ.요1:14, 18, 3:16, 18, 요일4:9 ㅅ.창1:6-7 ㅇ.창1:9-10 ㅈ.창1:6 ㅊ.창1:4 ㅋ.마6:10 ㅌ.마11:23, 16:18 ㄷ16:23 ㅍ.마8:12, 25:30 ㅎ.마18:8, 9, 25:46

하느님께서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저(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ㄱ 입니다.

동방에서 신 뒤에 밝을 명(明) 자를 붙여 신명(神明)이라는 말로 신을 일컫습니다.

신명에 소원을 빌 때면 정화수를 떠다 올려놓고 절하며 비는 조선의 토속이 있는데 물을 공경하여서가 아닙니다. 신명께서 수정같이 맑은 수면에 운행하셨듯이 신명께서 정화수가 있는 그 자리에 감응하시기를 바라서 신명의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못 소원도 결국은 어둠에서 밝아 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요, 신명께 제사를 올리고 비는 사람의 소원이 담긴 제문(祭文)을 소지(燒紙)하여서 불빛을 밝혔던 것도 인간의 제사에 신명께서 화답하시어 소원의 뜻이 이루어짐을 모형으로 거행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성서의 제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성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의 모형이듯, 셈의 ㄷ 후손들이 퍼져 ㄹ 사는 동방의 제사가 같은 모형을 갖습니다.

운행하시는 하느님의 신위(神位) 아래 물에서 하느님과 같이 밝으신 빛이 탄생하신 것이어서, 하느님과 같이 밝으신 하느님의 씨가 음에서 탄생하신 음양입니다.

신의 상대는 무위의 물이나 아버지의 상대는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탄생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천부와 유일하신 천자이신 바, 처음과 나중이신 일 양(陽)과 일 음(陰)의 양위이십니다.

음양(陰陽)의 음 자는 그늘 음(陰)이고 양 자는 별 양(陽)입니다. 그늘은 밤이 아니오, 별이 있어서야 있을 수 있는 것이 포근한 그늘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월광과 같은 빛이 그늘입니다.

일광과 월광이 다 같이 빛이나 월광은 일광만큼 강렬하지 않아서 해는 눈이 부서도 달은 사람의 눈으로 오래 볼 수 있습니다.

ㄱ. 요일1:5 계22:5 ㄴ. 히8:5, 9:23 ㄷ. 창9:26 ㄹ. 창9:19

하느님의 양위께서 다 같이 환한 빛이시듯 남자와 여자도 남녀이기 전에 다 같은 사람입니다.

남녀를 모두 사람이라 부르듯 하늘에 계신 하느님 또한 천부와 천자로 분별하여 부르지 않고 그냥 하느님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품에 계신 아드님의 형상을 따라 남녀가 지어졌기 ㄱ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요 바깥이 양이고 안이 음이며 먼저 쪽이 양이고 나중에 음이며 주격이 양이고 속격이 음입니다 ㄴ.

그 남녀와 같이 하늘과 땅 역시 한 쌍으로 붙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율법의 첫 말씀이십니다.

남녀와 같이 상천(上天)이 둘째 날에 지어지고 하지(下地)가 그 둘째 후 셋째 날에 지어져서 위가 양이고 아래가 ㄷ 음이 되어 한 쌍이요.

천지를 지으시고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라고 ㄹ 명하셨고 하느님의 이 명령을 받드시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기 ㄹ 큰 자가 양이고 작은 자가 음이 되어 한 쌍입니다.

위 하늘에 있어서 아래 땅을 비추는 일월이 남녀와 같이 하느님 양위의 형상과 같이 지어진 것이어서 이를 두 큰 광명이라고 한 쌍으로 붙여서 말씀하시고서, 그 두 큰 광명을 다시 일컬으시어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 두 큰 광명을 지으신 이는 크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보다 작으신 아드님의 모양을 ㄹ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월이 다 같이 궁창에 있는 광명이나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 그보다 작은 광명에 자리를 물려주면 그 작은 광명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아래 땅을 비춤으로써 천하의 일자를 이룹니다.

성서는 어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ㄱ. 창1:27 ㄴ. 창2:23 ㄷ. 창1:7~9 ㄹ. 창1:14 ㅁ. 창1:16 ㅂ. 요10:29, 14:28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으로 이루어진 성서는 하느님의 독생자를 증명하시는 ㄱ 말씀이요, 성서의 시작부터 그 독생자께서 증명되시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에 탄생하시어 아버지를 돕는 아드님이 없이는, 천지 만물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지어진 것이 없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지어진 천지의 그 공간도 없고 넷째 날에서야 이루어진 지상의 주야도 없는 태초이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매번 지칭하신 칠 일은 천하의 일자가 아니라 첫째 날에 낮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빛의 활동이십니다.

하느님의 넷째 날에 일월을 창조하시고 해로써 낮을, 달로써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주야로 날(日字)이 되도록 하셨듯,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느님께서 낮이라고 칭하신 생명의 빛이 없이는 하느님의 일하심도 없으신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이라 칭함을 받으신 그 생명의 빛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날들이 된 것인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것이 몇째 날이라면 생명의 빛이 사망으로 마감하는 것과 같으나 하느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자가 곧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날들을 이루는 빛이고 그 천상의 빛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탄생하신 생명 그 자체이시어서 사망으로 종착 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제 몇째입니다.

태양은 항상 같으나 달은 회삭(晦朔)을 반복하듯,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한 고개를 넘으신 그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 한 고개를 넘으시니 하늘이 지어지고 또 한 고개를 넘으시니 땅이 지어졌습니다.

ㄱ. 요5:39 ㄴ. 창1:5 ㄷ. 요1:3 ㄹ. 요일1:5 ㅁ. 창1:5~2:1, 계21:25, 22:5 ㅂ. 계3:14 ㅅ. 골1:18 ㅇ. 창1:6~13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신 성서의 첫 말씀대로 하느님의 창조는 둘째 날에 하늘이 지어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일곱 날을 이루시는 빛을 피조물로써 간주한다면, 그것은 율법 중 첫 책이고, 그 첫 책 중에서도 첫 마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겨서 있는 만유 중 으뜸이신 첫째 날의 빛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생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성서는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부터 비로소 하느님의 지으시는 일을 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 하셔서 창조하신 일월성신과 생산하신 빛을 구별하시었습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을 이루신 생명의 빛과 그다음의 둘째 날로부터 지어진 천지 만물은 성(聖)과 속(俗)으로 구별되어서, 율법에 하루 중의 첫 때는 아침이니 묵은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함으로써 정결케 하고, 달로 하면 월삭이라 제사하고 해로하면 정초여서 성막(聖幕)을 치고 그안을 모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루 중 처음 때를 좋다는 말로 인사하고 나쁜 말은 삼가서 부정함이 없는 날을 맞으려 합니다.

하루 중의 첫 때만이 아니라 한 해 중의 처음을 정초(正初)라 하여서 새 옷을 입고 좋은 말로 덕담하며 생산을 표상하는 세(歲) 알을 넣은 떡국을 들고 위 어른께는 세배하여서 첫 때를 좋게 지내듯, 시작의 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생산하셔서 창조의 근본을 삼으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십니다.

ㄱ. 창1:1 ㄴ. 요1:3 ㄷ. 골1:15~17 ㄹ. 창1:16 ㅁ. 출16:19, 23:19 ㅂ. 민28:11 ㅅ. 출40:1 ㅇ. 계1:14

물과 하느님의 신으로 탄생하신 이 빛이 있으셔서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바여서 하느님과 함께 그 아드님 역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상의 주이십니다.

천지 만물 또한 없던 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생겨났다고도 말할 수 있듯이, 이 빛은 비록 지어져서 계시는
 님은 아니나 그 역시 생겨 있는 천지 만물과 마찬가지로 피동이 되어 탄생하신 님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이 빛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계셔서 생긴 것이어서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ㄱ 하신 같은 말씀을 매번 반복하셨으나 하느님께서 생산하시어서 탄생하신 빛
 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어서 생겨난 천지 만물은 구별되어서 첫째 날의 빛은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수면에
 운행하시어 생산하신 바를 나타내셨으나,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생겨난 것마다 지으셨다는 말씀
 을 부연하셨습니다 ㄴ.

반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도 증명하시고 저렇게도 증명하시는 다각적인 증명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물과 신으로 탄생하신 님이십니다.

성서에 피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ㅅ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의 주를
 가리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ㄹ 증언하였습니다.

태초에 물과 신으로 탄생하신 자께서 육신이 되어 ㅈ 임하셨으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한 것이고 더 중
 한 증언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는 ㅊ 증언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신 거룩하신 신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탄생하시어 물도 되시고 신도 되시는 빛이셨는데 사람
 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임하셨으니 성자께서는 물과 신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이신 몸이라는 증언입니다.

ㄱ.창1:2~3 [요3:5] ㄴ.요1:10 고전8:6 골1:15~17 히1:2, 2:10 계1:17, 22:13 ㄷ.요1:1, 17:5 ㄹ.시110:1 ㅁ.창
 1:4, 12, 18, 21, 25, 27 ㅂ.창1:6, 16, 21, 25, 27, 31 ㅅ.창4:10~11, 9:4 ㅇ.요일5:6 ㅆ.요1:14, 요일4:2 ㅈ.요
 일5:8

태초에 신도 되시고 물도 되시는 생명의 빛이 ㄷ 계시므로 ㄹ 말미암아 비로소 하느님의 뜻대로 천지가 지
 어질 수 있게 된 것은 그 생명께서 신과 물 사이의 다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
 리라』 라고 ㄷ 하신 하느님의 뜻하심이 먼저 계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
 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고 ㄱ 하신 수행이 뒤따라서 하늘이 개벽(開闢)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신 아버지와 함께 아들께서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수행하셨
 기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주장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이 물을 통과하심으로써 물이 움직
 여지고 없던 천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셔서 아버지의 뜻과 물 사이를 맺으셨기, 천지는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생산하신 빛과는 달리 한
 다리 건너 지어졌습니다.

물과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신은 서로 다른 바로되, 그 생명의 빛은 물도 되시고 신도 되시는 몸을
 가지셨기 중보(中保)의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둘째 날로부터 하느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여섯째 날까지 그 어느 날이든 하느님
 께서 당신의 뜻을 명하신 전반이 ㅂ 있고 또 그 뜻을 받들어 수행하신 후반이 ㅅ 있는 것이고 그 능동의 선
 창과 수동의 후렴이 부절(符節) 같이 맞물려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은 이 같은 음양의 조화(造化)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ㄹ 객체 쪽이 천상의 빛이 나시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비로
 소 땅보다 먼저 하늘이 열려 ㅈ 위가 먼저 쪽이 되는 차례로써 땅의 혼돈이 질서로 변화한 것이오.

ㄱ. 요8:12 ㄴ. 요8:58, 17:5 ㄷ. 창1:6 ㄹ. 창1:7 ㅁ. 창1:6, 9, 11, 14~15, 20, 24, 26 ㄴ. 창1:7, 9와 11의 「그대로 되니라」, 16~18, 21, 25, 27 ㄷ. 창1:2 ㄹ. 창1:6~7

궁창 아래 물이 쓸려나감으로써 물이 드러나 ㄱ 공허하였던 땅이 견실함으로 변화한 것이요. 땅 위의 궁창에 일월성신의 광명이 지어져서 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이 광명이 높음 위에 있는 세상으로 화(化)하여진 것이어서 이것이 하느님의 둘째와 셋째와 넷째 날입니다 ㄷ. 일월성신을 지으신 넷째 날을 중심으로 전반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천지가 지어지고 후반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기식(氣息)이 있어서 움직이는 생물들과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ㄹ. 창세(創世) 전에 ㅁ 신과 빛이 함께 있으셔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극동의 사람들이 신과 빛이신 신명 앞에 위 하늘과 아래 땅을 붙여서 천지신명(天地神明)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주(主)이심과 같이 땅에도 여전히 주이신 상천 하지의 주이시니 ㅂ 인생이라면 의당히 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천하 인생이 오로지 섬겨야 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신데 유일하신 천부만이 인생에게 하느님이 아니요 하느님의 유일하신 천자 또한 하느님이시니 ㅅ 하느님께서는 위아래의 양위이십니다. 뜻을 내어 주장하신 아버지와 그 말씀을 한 터럭의 오차 없이 따르시는 아들이시니 몸은 둘이시나 뜻은 하나이십니다.

첫째 날의 탄생하신 빛이 있으셔서 비로소 둘째 날부터 지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둘째 날부터 지으셔서 여섯째 날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고 ㅇ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하늘을 지으신 둘째 날부터 시작되어서 여섯째 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빛의 운행이 있으셔서 그 오행(五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ㄱ. 창1: 9 ㄴ. 창1:14~18 ㄷ. 창1:6~19 ㄹ. 창1:20~31 ㅁ. 요8:58, 17:5, 24 ㅂ. 신4:39 수2:11 대하20:6 마5:34~35, 11:25 ㅅ. 요1:1, 18 ㅇ. 창1:31

분명히 여섯째 날에 하느님께서 보신 것이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이라 하시었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ㄱ 하셨건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ㄴ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당신의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안식하심도 빛이 있어서야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유일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됨이 없이 불리신 날입니다. 만물을 다 지으셔서 하느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없는 일곱째 날의 빛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비추시어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순전히 하느님과 그의 아들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신 날들입니다. 첫째 날은 하느님께서 빛을 보신 날이어서 아버지 품 안에 ㄷ 독생자께서 계신 창세 전이요.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창세 전에 탄생하신 그 빛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신 반면 당신께서는 그 거룩하여지신 빛 안에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안과 밖이 서로 뒤집힌 형국입니다.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ㄹ 하느님의 양위(兩位)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인생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라면 어느 인생이 살면서 눈물을 지으리오. 주시는 자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일곱째 날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어서 아드님께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당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위하시는 사랑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ㄱ.창2:1 ㄴ.창2:2 ㄷ.요1:18 ㄹ.요10:38, 14:10~11, 14:20, 17:21~23

무궁한 창세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셨기^ㄱ 그 부자 양위(兩位)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이신데^ㄴ, 아들을 생산하신 하느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ㄷ 당신께서 누리셔야 할 창조의 보람을 아들이 누리도록 하시고 당신은 안식하셨습니다.

천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ㄹ 아드님께 양위(讓位)하시어서^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주장하셨던 주권을 아드님에게 주시어서 당신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아드님께 상속하신^ㄷ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만 하셨고 일하심으로써 이루신 보람을 모두 아들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 빛을 상대하여 보시고 좋으셨신^ㄴ 하느님만이 천상의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낮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신 빛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고개들을 넘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섯째 고개를 넘으시고 일곱째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매^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아드님 또한 천상의 거룩하신 주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같이 탄생부터 시작하시어서 상속까지 신분을 다 증명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하느님의 성호를 말씀하셨습니다^ㄷ.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보다 먼저 계신 하느님의 신과 빛은 좌우로 영존하시는 주이십니다^ㄴ.

천지 만물이야 그것을 상대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존재가 증명되나, 하느님께서 서로 보시고 증명하심으로써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아니하여도^ㄷ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ㄹ.

ㄱ.창1:4 ㄴ.창1:1 ㄷ.창1:31 ㄹ.마28:18 요5:27, 17:2 ㄴ.단7:14 마11:27, 28:18 요3:35, 13:3, 16:15, 17:2, 10 ㄴ.마21:38 막12:7 눅20:14 히1:1~3 ㄴ.창1:3 ㄴ.요일1:1~2 ㄴ.시110:1 ㄴ.창2:4 ㄴ.시102:25~27 ㄴ.요2:25 ㄴ.요8:17~18

여호와라고 하는 하느님의 성호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ㄱ.

성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 증명하신 것^ㄴ 같이 거룩하신 독생자께서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은 인생보다 더 나중이신 일곱째의 인자(人子)로^ㄷ 오시어서 당신의 아버지를 다 증언하시고^ㄹ 그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을 『우리』의 증언이라고^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드님을 위하여, 주장하시던 당신의 주권을 버리시고 아들 안에 안식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내려받아 탄생하신 아드님 또한 조금도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시어서^ㄷ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었으니^ㄴ 그 아버지와 아드님께서는 서로 안의 몸이십니다^ㄴ.

양위께서 서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몸이 되심으로써 그 결과 하느님의 열매가 생산되는 것이어서 양위의 상생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그 『우리』 중 한 분께서 하늘보다도 먼저 탄생하셔서 천지는 물론 인생이 있게 되었으니 인생에 무엇보다 중한 날이 그 첫째 날임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끝의 일곱째 날을 자자손손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일곱째 날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이미 창조된 인생으로서 더없이 중한 교훈이 하느님의 안식일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드님을 생산하셔서 양위가 되신 하느님들이시나 그 양위께서 서로 사랑하시어 찰떡같이 연합하여 하나이시니 그 모습이 온전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입니다.

하나에서 둘로 분화되는 양과 음이 아니라 뒤집혀서 양위의 짝수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음양이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ㄱ. 출3:14 ㄴ. 요5:39 ㄷ. 마12:8, 40 요12:23 ㄹ. 요1:18, 3:10~11, 32, 5:12~32, 36~38, 8:17~18 ㅁ. 요3:10~11 ㅂ. 마6:13, 요5:41, 7:18, 8:50, 54, 12:28, 13:31~32 ㅅ. 마20:28, 26:39 막14:33~36, 요12:27~28 ㅇ. 요10:38, 14:10~11, 20, 17:21 ㅈ. 창3:22 ㅊ. 출20:8, 31:13 ㅋ. 마19:29 요3:16, 4:14, 5:24, 6:40, 6:51~54 ㅊ. 요일2:25 ㅅ. 요10:30, 17:22 ㅆ. 출33:19 막10:18

이쪽에서는 저만을 위하니 이쪽이 없이 저만 있고 저쪽에서는 이만을 위하니 저쪽이 없이 이만 있어서 양위가 하나입니다.

서로 상대이신 양위께서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사람이 감지하는 천지가 그 하나이신 양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어서, 사람의 한계만큼 수억 만 리를 뻗어보아도 하느님의 그 하나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궁창 안의 일월이 교차하여 날짜를 이루고 그 날짜로 따져서 제 칠일이 되면 의례로 지켜야 하는 세상의 안식일이 표징 하는 거룩하신 실체가 하느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태초에 탄생하셔서 낮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그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섯째 고개를 넘으셔서 자태를 드러내신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께서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안식하심으로써 더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됨이 없는 빛만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약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지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선하신 하느님의 형상 같이 인생이 거룩하여져야 비로소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하시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르셨습니다.

인생이 옛세를 일하고 제칠일은 쉬어야 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실체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어서 그 여호와 하느님의 실상에 대한 표징입니다.

ㄱ. 요17:21~23 ㄴ. 요10:30 ㄷ. 고전8:6 ㄹ. 신4:39 요5:44 ㅁ. 출31:13 ㅂ. 눅6:5 ㅅ. 창1:5 ㅇ. 계21:25, 22:5 ㅈ. 마19:28 요3:17 계21:3~4 ㅊ. 출33:19 ㅋ. ㅌ. 출31:13 ㅆ. 출31:16~17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평안하신 그 하느님의 안식은 지금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지으시고 평안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알아야 하는 여호와의 실체는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복을 받아 거룩하신 자가 되신 빛입니다.

첫째 날에 탄생하시어서 여섯째 고개를 넘으시고 일곱째로 다시 나신 하느님의 낮이오. 그 일곱째 날을 증언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ㄱ.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 일곱째의 빛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ㄴ 예언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ㄷ 성자께서 하느님의 지으신 천지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엄습하는 여섯째의 어둠을 깨뜨리시어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과 같이 땅에서도 환하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ㄹ 임하옵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만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결국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ㄴ 것입니다.

하느님네들의 모양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ㅂ. 아버지 안에 아드님께서 계시고 아드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어서 하나이신 님이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인생이 그와 같이 하느님의 독생자와 하나가 되는 ㅅ 것이 영생입니다.

인생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로 나시어서 거룩하신 몸이 되신 하느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일곱 영을 ㄹ 받아서야 비로소 인생이 거룩한 몸으로 다시 나는 ㅈ 것입니다.

ㄱ.창2:4 ㄴ.마4:17, 6:10, 10:7, 12:29, 막9:1 눅4:43, 22:18 계12:10 ㄷ.창1:2 ㄹ.계21:6 ㅁ.마6:10 ㅂ.창1:27, 5:1~2 ㅅ.요17:23, 26 ㅇ.계5:6 ㅈ.요3:5

그 하느님의 독생자가 곧 도(道)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ㄱ.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ㄴ 그 도의 모양이 태극입니다.

일 양(陽) 안에 일 음이 있고 일 음(陰) 안에 일 양이 있어서 그 양과 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양을 일컬어 태극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하느님이신데 ㄷ 그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말씀은 공간이 아니라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어서 낮이라고 일컬으신 ㄹ 하느님의 일곱 날은 해와 달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아니라 처음이 나중 안에 있으시고 나중이 처음 안에 있으시어서 영존하시는 님께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날입니다.

빛이 되어 살아계신 영겁이 있어서 하늘은 물이 위와 아래로 떨어져 생겼고 땅도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물려서 물과 물이 나누어져 드러난 것이니, 천지가 모두 음양으로 나뉘어(肇判)서 생겨난 것이어서 개벽(開闢)되었습니다 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드님은 물질이 아닌 신명이시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물이 ㅂ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물질이나 바람같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명에 의하여 그 신명의 모양을 따라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서 하늘이 생긴 것이고 아래 물은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서 육지와 바다가 생겼고 다시 그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ㅅ.

도(道)를 숭상하였던 극동에서는 천지가 음양의 조화(造化)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서 하느님을 조화옹(造化翁)이라고 표현하였고 천지는 개벽 되었다고 전하여오고 있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성서의 말씀과 부합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ㄱ.요14:6 ㄴ.시33:6 요1:2, 10, 고전8:6, 골1:15~17 ㄷ.계1:17, 2:8, 21:6, 22:13 ㄹ.창1:3~5 ㅁ.창1:6~10 ㅂ.계15:2 ㅅ.창1:27